

11

쓰임과 아름다움

- 1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공예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2 실생활에 사용되는 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다.



“
우리 주변의
다양한 공예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 물레로 항아리를 만드는 모습

빛어서 구워 내다

도자 공예는 흙을 반죽하여 빚고 불에 구워 제작한다. 도자기는 사용하는 점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고,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강도를 높일 수 있다. 다양한 도자기의 종류와 기법을 알아보고 도자 공예의 매력에 빠져 보자.



▲ 정아인(학생 작품)
고양이 수저받침
(백토에 유약/4×9.2×3.4mm)

▲ 홍기현(학생 작품) 선인장 집시(백토에 유약/
14.4×8×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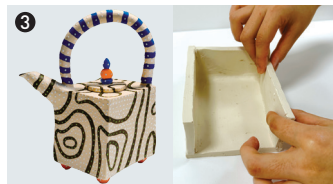
도자의 성형 방법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도자기의 형태와 느낌을 살펴보자.



1 펀칭 기법 흙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눌러 빚어서 형태를 만든다. 비정형적이고 자유분방한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한다.



2 코일링 기법 흙을 가늘고 길게 만든 뒤 아래부터 쌓아 올려 형태를 제작한다. 자유로운 형태와 거대한 크기의 작품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3 판 성형 흙을 판처럼 납작하게 만들고 판을 붙여 제작한다. 주로 각진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한다.



4 물레 성형 물레에 흙을 올리고 회전시키면서 형태를 만든다. 주로 대칭 형태를 빠른 속도로 만들 때 사용한다.

① 애그뉴(Agnew, Liana/미국/생년 미상) 펀치 머그(자기/12.7×12.7×10cm/2014년) ② 중세 스튜디오 도자기 촛대(세라믹/14.31×9.23cm/1956년) ③ 넬슨(Nelson, Vaughan/포르투갈/1968~) 블랙 라인 찻주전자(세라믹/22×15×15cm/2022년) ④ 에프라임 도자기(Ephraim Pottery/미국/1996~) 수제 도자기 컵(세라믹/10.7×8.2cm/2019년)

도자의 종류

도자기는 단순한 쓰임을 넘어 그 시대의 기술과 미의식을 보여 준다. 사용된 재료와 제작 방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자의 생김새와 특징을 살펴보자.



▲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높이 42.1cm, 입지름 61cm, 밑지름 16.5cm/고려 시대) 산화철이 포함된 흙과 유약을 사용하여 1,250도의 환원염으로 구워 아름다운 푸른색을 띤다.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외관 형태가 특징적이다.



▲ 분청사기 상감 운룡무늬 항아리(높이 49.7cm, 입지름 15cm, 밑지름 21.2cm/15세기) 청자를 만들던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백토로 분장하여 구운 항아리이다. 상감 기법과 인화 기법을 사용하여 무늬를 새겼다.



◀ 백자 달항아리(높이 49cm, 입지름 20.1cm, 밑지름 15.7cm/18세기) 백토로 몸통을 만들고 청자보다 높은 1,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 제작되었다.

겨울 눈처럼 하얀 흰색, 불완전하지만 어딘가 정감이 가는 둥근 형태에서 편안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생활 속 멋과 재미를 더해 주는 도자기의 모양과 색, 쓰임은 정말 다양해!



▶ 백자 청화 기명절지무늬 주자(높이 18cm, 입지름 6.5cm, 바닥 지름 9.7cm, 최대 지름 16.5cm/조선 시대) 백토로 형태를 만들고 코발트가 함유된 회청으로 문양을 그려 넣어 도자기에서 청명한 푸른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 상감 기법은 성형한 도자기 표면에 조각칼을 사용하여 음각으로 문양을 새기고, 그 안에 흰색이나 붉은색 흙을 채워 만드는 기법입니다. 고려 시대 도공들이 고안한 상감 기법은 세계 도자사상 독보적인 장식 기법으로 고려 청자만의 뛰어난 독창성과 조형미를 보여 주었습니다.

도자의 제작 과정

정성과 시간을 담아내는 도자기의 제작 과정을 알아보자.



알고 가기 도자기 이름! 어떤 순서로 짓는 걸까?

1. 종류

청자, 분청사기, 백자

2. 장식 기법

상감, 청화, 귀얄, 철화 등

3. 문양

운학무늬, 운룡무늬, 구름무늬, 용무늬 등

4. 형태

매병, 항아리, 연적, 장군 등

내 이름을 맞춰 보!



물들이고 덧붙이고 꼬다

섬유 공예는 색실이나 한지 또는 염색한 천을 사용하여 장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길긴 닥나무로 만든 종이를 배접하거나 꼬아서 만든 한지 공예품은 가볍고 견고하다는 특징이 있고 다양한 색지로 화려함을 더할 수 있다.



▲ 천연 식물 재료로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다.



◀ 영친왕 모란무늬 자수 향주머니(견, 견사, 금사, 은사, 유리옥/7.7×10.8cm/20세기) 비단과 무명으로 제작되었다.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무늬를 수놓아 장식하였다.



▶ 대삼작 노리개(길이 33cm/조선 시대) 한복 저고리의 고름에 다는 여성용 장신구이다.

▼ 명주 조각보(57×57cm/19세기) 조각보는 운반, 보관, 포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자투리 천을 모아 이어서 만들었어.



◀ 소빈(한국/1968~) 순이(한지에 채색/2009년) 한지를 붙이고 건조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사람 형상을 만들었다.



닥나무는 섬유 길이가 길고 강하여 종이를 만드는 재료로 이용됩니다.



▼ 지함(종이/20.8×41.5×19.5cm/조선 시대) 나무로 골격을 만든 다음 안팎으로 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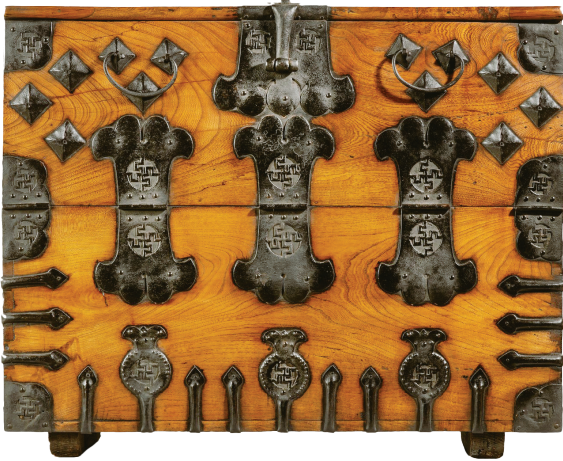


▲ 김선애(한국/1971~) 달항아리-품달 I(한지/49×49×51cm/2022년) 일정한 크기로 자른 종이를 꼬아서 끈을 만들어 엮는 방법으로 제작된 지승 공예품이다.

▼ 경주 부부총 금귀걸이(길이 8.7cm, 지름 3.8cm/신라 시대) 아주 작은 금 알갱이와 금실을 이용한 정교한 장식이 돋보이는 귀걸이이다.



▼ 백옥 수자무늬 떨잠(길이 12.1cm/20세기 초) 예복을 입을 때 머리에 꽂는 장식이다. 구성과 색상이 화려하다.



▲ 제주 궤(반달이)(70×86×44cm/19~20세기 초) 밝은 나무 무늬와 검고 큼직한 무쇠 장식들이 대비를 이룬다. 책, 문서, 의복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 경상(33.6×80×33cm/조선 말) 앉아서 사용하는 작은 상이다. 두루마리 책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책상의 양 끝을 살짝 들어 올렸다.

끊고 자르고 두드리다

금속 공예는 금, 은, 동과 같은 단단한 금속을 두들겨 늘리거나 녹인 후 거푸집에 부어 형태를 만든다. 투명한 광택을 내는 유리를 재료로 사용하는 유리 공예는 열을 가하여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는 목공예는 돌이나 금속에 비해 다루기 쉽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 녹유리 사리병 (유리/높이 5.9cm/고려 시대) 뚜껑의 은빛과 유리로 만든 몸체의 초록색이 뛰어난 조화를 이룬다.



▲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수정, 붉은 마노, 유리 등/3세기 말~4세기 초)

▶ 유리등(유리/높이 33.5cm, 최대 지름: 28.1cm/19세기) 투명한 유리로 만든 구형 유리등이다.



공예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미술이야!



알고 가기 나전의 빛과 옷의 광택이 어우러지다

목제품 표면에 옷칠을 하고 그 위에 얇게 간 조개껍데기(나전, 자개)를 오려 붙여 만든 칠공예품을 나전 칠기라고 한다. 중국 당나라 때 전래되어 고려 시대에 빛을 발한 한국의 나전 칠기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양식을 이루며 발전하였다. 나전 칠기가 지닌 신비로움, 화려함, 정교함의 매력은 해외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 전복 껍데기와 자개를 곱음질하며 문양을 만드는 과정

▶ 부분 확대 사진

▼ 나전 국화녕쿨무늬 자함(9.8×7×3cm/고려 시대) 국화 꽃잎과 녕쿨무늬가 손바닥만 한 크기의 함 둘레에 수놓듯이 새겨져 있다. 나전 칠기의 전성기인 고려 시대 때 기법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품이다.



새로워진 현대 공예

현대의 공예는 알루미늄, 철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거나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전통 공예 기법으로 순수 조형 작품을 제작하거나 3D 프린터와 같은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의 다양한 공예 작품을 살펴보고 새로운 공예품을 만들어 보자.



◀ 김현희(한국/1991~) **오래된 미래 2**(철, 알루미늄, 아크릴/60×83×43cm/2019년) 현대 재료인 알루미늄과 철로 전통 재료인 나무를 대체하고 외부와 내부를 가로막는 유리 장을 생략하여 조선 시대 가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 이선미(한국/1917~) **안경알 땅빛 육각문 항아리**(안경알, 동, 황동, 안경용 볼트, 너트/45.5×35.5×35.5cm/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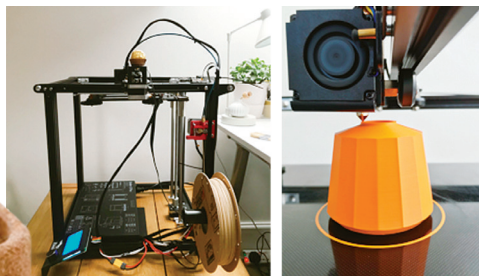
▲ 이정훈(한국/1964~) **양반**(호두나무, 도금/40×26.5cm/2010년) 양반의 멋스러운 '갓'을 모티브로 제작한 식탁이다.



▲ 정직성(한국/1976~) **202224, 202225, 202226, 202227, 202228, 202229**(나무에 삼베, 자개/180×51cm/2022년) 전통 공예 재료인 자개를 사용하여 과거와 현대 서울의 모습을 함께 담은 화려한 풍경화를 제작하였다.



▲ 소혜정(한국/1992~) **자아**(조합토, 전구/92×39×32cm/2015년) 캐릭터를 기반으로 만든 도자 아트 장난감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돌연변이 동물들이 자아(빛)를 찾는 과정을 표현했다.



◀ 트라에(Traae, Keeley/영국/1968~) **안녕, 예쁜이!**(Eco PLA/5×7.5cm/2020년) 100% 재생이 가능한 천연 자원으로 만든 생분해성 소재와 3D 프린팅 기술로 완성한 디지털 공예품이다. 꽃병으로 사용된다.



표현활동

개성을 담은 생활용품 만들기

한지 조명 만들기

표현 재료 철사, 전구, 한지, 가위, 칼, 풀, 접착제



1 철사로 조명의 틀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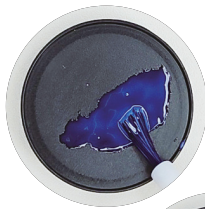
- 2 색한지를 오려 붙이거나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 조명 갖을 만든다.
- 3 접착제를 활용하여 뼈대에 한지를 고정한다.



▲ 김윤서(학생 작품) 알록달록 빛깔(한지에 수채, 철사/26×15×15cm)

나전 칠기 그림톡 만들기

표현 재료 그림톡, 자개, 공예용 집게, 이쑤시개, 공예용 바니시



1 그림톡에 공예용 바니시를 얇게 바른다. 한번에 전체를 바르지 않고 자개를 먼저 올릴 부분부터 차례대로 바른다.



2 자개를 올려 그림톡을 장식한다.



3 완성된 자개 작품 위에 공예용 바니시를 도톰하게 바른 뒤, 그늘에서 천천히 말린다.



▲ 송하민(학생 작품) (좌) 고래의 꿈(그림톡, 자개, 공예용 바니시/지름 4cm)
(우) 핸드폰에 부착된 그림톡



단원 점검하기

- 공예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쓰임에 맞는 공예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쓸모없거나
아름답지 않은 것은
집에 두지 마라.

- 윌리엄 모리스 -



09 뿌리 깊은 전통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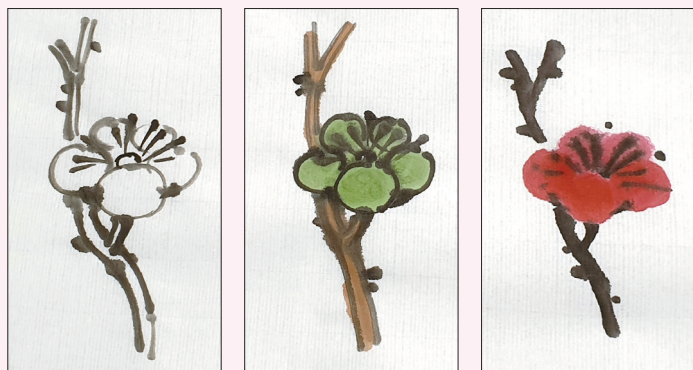
전통 회화는 우리 문화와 정서를 바탕으로 종이, 붓, 먹, 물감, 안료 등 재료와 용구의 특성을 살려 표현한 그림이다.

전통 회화의 종류

- 재료와 기법에 따른 분류
 - 수묵화: 채색을 하지 않고 선과 여백, 먹의 효과를 활용한 그림
 - 수묵 담채화: 먹으로 그린 다음 얇게 색을 칠한 그림
 - 채색화: 채색을 위주로 수묵화보다 화려하고 사실적으로 대상을 묘사한 그림
- 소재에 따른 분류
 - 산수화: 산과 들, 계곡 등 자연의 경치를 그린 그림
 - 인물화: 인물을 소재로 그린 그림
 - 화조화: 꽃과 새를 소재로 그린 그림
 - 영모화: 새나 털이 있는 짐승을 그린 그림
 - 초충도: 풀과 벌레, 곤충을 소재로 그린 그림
 - 어해화: 물고기, 게 등을 소재로 그린 그림
 - 기명절지화: 그릇이나 골동품, 꽃, 과일, 화초 또는 문구류 등을 그린 그림
 -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문인이 닦고자 한 기상, 절개 등으로 비유하여 그린 그림

전통 회화의 표현 기법

- 백묘법: 채색을 하지 않고 대상의 윤곽을 선으로만 표현하는 기법
- 구름법: 대상의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에 먹이나 색을 칠하여 표현하는 기법
- 물골법: 윤곽선 없이 대상을 대담하고 간략한 붓질로 표현하는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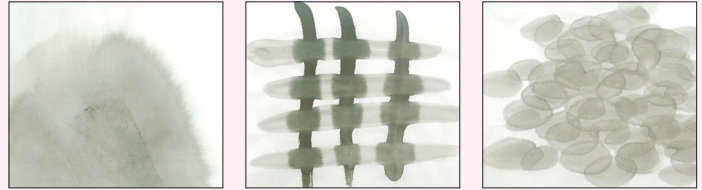
백묘법

구름법

물골법

수묵화의 표현

- 선의 표현
 - 준법: 미점준, 피마준, 부벽준, 절대준 등
- 먹의 표현
 - 삼묵법: 농묵, 중묵, 담묵
 - 발묵, 파묵, 적묵



발묵

파묵

적묵

민화

민화는 주로 생활 공간을 장식하거나 부귀, 건강, 출세 등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린 그림이다. 작가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며 화조, 산수, 물고기, 호랑이, 토끼, 까치, 책거리, 무신, 무속, 십장생, 사신도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룬다.

문인화

문인이 여가에 그린 그림이다. 수묵을 위주로 기교보다는 내면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한다. 사군자, 화조, 인물, 산수 등을 소재로 하며, 화제를 곁들여 그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시, 서, 화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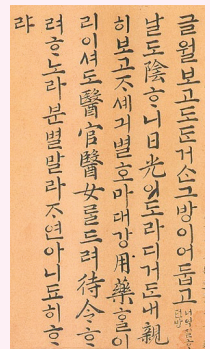
10 아름다운 문자 예술

서예의 표현

- 집필법: 손으로 붓을 잡는 방법. 단구법, 쌍구법, 오지법이 있다.
- 완법: 붓 잡은 팔을 쓰는 방법. 현완법, 제완법, 침완법이 있다.
- 운필: 선을 그을 때 붓을 대고 긋고 떼는 과정. 기필, 행필, 수필이 있다.
- 운필: 선을 긋는 동안 붓을 잡는 힘과 움직이는 속도, 방향 등의 변화로 점획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한글 서체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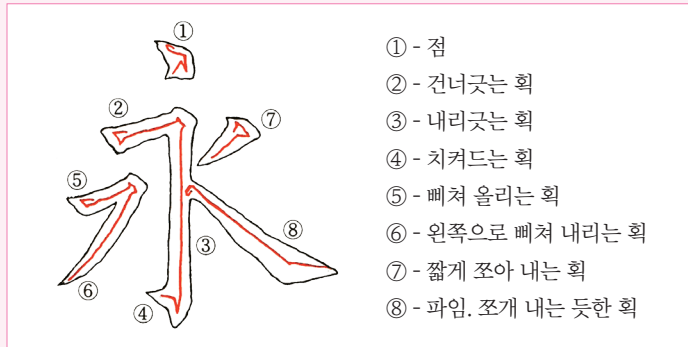
- 판본체: 한글 창제 이후 <훈민정음> 등의 판본에 사용된 서체
 - 글자의 모양이 사각형이다.
 - 글자의 중심이 중앙에 있으며 좌우 대칭이다.
 - 가로획, 세로획이 수평과 수직을 이루며 굵기가 일정하다.
- 궁체: 조선 시대에 궁녀들이 쓰던 한글 서체
 - 모음에 따라 자음의 모양이 변한다.
 - 글자의 모양이 기하학적 도형이다.(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 육각형)
 - 획의 변화가 많고 세로획이 가로획보다 굵다.
 - 글자의 중심을 오른쪽에 두고 가지런히 맞추어 쓴다
- 혼서체: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것. 인쇄체였던 판본체의 수평이 깨지고 점획의 굵기 변화가 나타난다.



▲ 혼서체-선조어필 (부분/필사본/1603년)

» 한문 서체의 표현

- 전서: 세로가 길고 획의 굵기가 대체로 일정하다.
- 예서: 가로가 길고 획의 굵기에 변화가 있다.
- 해서: 예서의 글자 형태가 정사각형으로 바뀐 서체. 세로획이 가로 획보다 굵다.
- 행서: 정자체인 해서와 흘림체인 초서의 중간 글씨체인 반흘림체이다.
- 초서: 빠르고 간략하게 쓰며, 점과 획이 생략되고 흘림이 심하다.



- 영자팔법: ‘영(永)’ 자의 여덟 점획으로 해서의 기본 용필법을 설명한 방법. 필순에 따라 ①측(側), ②늑(勒), ③노(努), ④적(趯), ⑤책(策), ⑥략(掠), ⑦탁(啄), ⑧책(磔)이라고 한다.
- 캘리그래피: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쓴 손 글씨이다.

» 전각의 표현

- 집도법: 전각 도구를 잡는 방법. 단구법, 쌍구법, 오지법이 있다.
- 운도법: 전각 도구를 운용하는 방법. 밀어서 새기기, 당겨서 새기기 방법이 있다.

» 전각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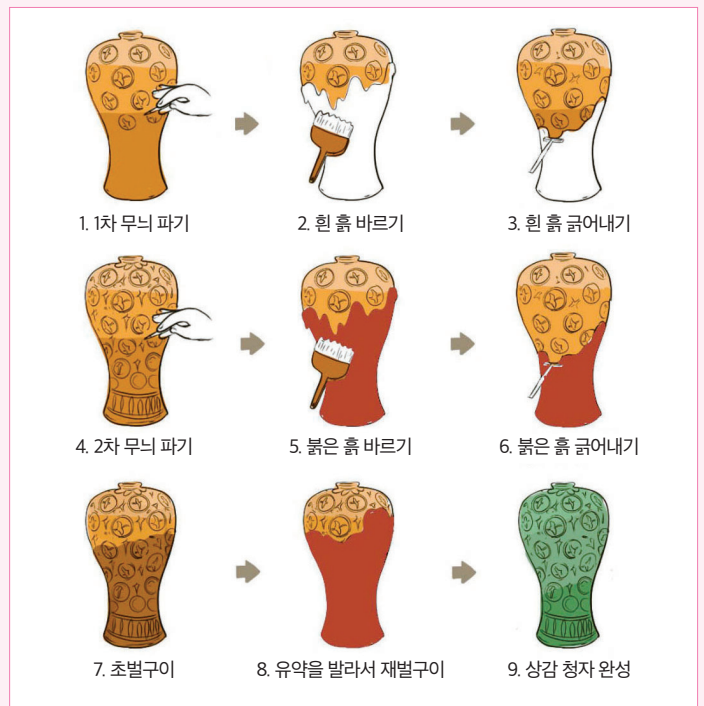
- 새김 방식에 따른 분류
 - 음각: 바탕은 그대로 두고 글씨를 새기는 방법. 글씨 부분이 흰 색으로 나와 백문이라고도 한다.
 - 양각: 글씨를 남기고 바닥을 새기는 방법. 글씨 부분이 붉게 나와 주문이라고도 한다.
- 내용과 용도에 따른 분류
 - 성명인: 이름을 새긴 도장
 - 아호인: 작가의 호를 새긴 도장
 - 사구인: 좋은 글귀를 새긴 도장
 - 초형인: 글씨가 아닌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을 새긴 도장
 - 감상인: 그림이나 글씨를 감상하고 찍는 도장
- 서각
 - 나무 등에 붓글씨를 바로 붙여 놓고 새겨 현판이나 비석 등으로 사용한다.

11 쓰임과 아름다움

공예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아름답고 쓸모 있게 만드는 조형 예술이다.

» 공예의 종류

- 도자 공예: 흙을 빚어 형태를 만들고 불에 굽고 장식하는 공예 기법. 도자기 표면을 장식하는 방법으로 청자의 바탕에 문양을 파낸 뒤 흙을 메꾸는 상감 기법, 거친 붓에 백토를 묻혀 칠하는 귀얄 기법, 철분이 함유된 철사 안료로 그림을 그리는 철화 기법 등이 있다.



▲ 상감 청자 제작 과정

- 지공예: 한지로 장, 농, 함, 향아리 등 일상생활의 도구를 만드는 공예 기법
- 목공예: 목재를 이용하여 가구나 기물 등을 만드는 공예 기법
- 금속 공예: 금, 은, 동, 철 등 금속을 재료로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건이나 장식품을 만드는 공예 기법
- 칠보 공예: 금속 재료에 유리질의 유약을 바른 뒤 녹여 붙이는 과정을 거쳐 장식하는 공예 기법
- 유리 공예: 투명한 유리를 재료로 하여 조형미를 갖춘 일상 용품을 제작하는 공예 기법
- 섬유 공예: 섬유로 만들어진 천이나 실로 만든 공예 기법. 천을 염색하는 방법으로 파라핀염, 홀치기염, 날염 등이 있다.
 - 파라핀염: 파라핀(양초)을 칠한 부분은 염색이 되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염색 방법
 - 홀치기염: 천을 실로 묶어 염료에 담가 실로 묶은 부분만 염색되지 않아 문양이 나타나는 염색 방법
 - 날염: 프린팅 기법으로 문양을 찍어 내는 염색 방법